



중국과 인도가 주도하는 미래에 대비하라

譯者, 책을 말한다

마오를 이긴 중국 간디를 넘은 인도
로빈 메레디스 지음 | 오혜경 역 | 옮김 | 이슬퍼냄 | 1만7000원



용의 급부상 코끼리의 끈기

지난 수십 년간 전 세계로부터 고립된 채 지독한 가난에 시달리던 중국과 인도. 그 두 나라가 경제개혁에 나서면서 각각 마오쩌둥과 간디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가의 운명을 열어가기 시작한다.

용처럼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코끼리처럼 느리지만 끈기 있게 한걸음씩 전진하는 인도! 책의 제목이 시사하듯 중국과 인도는 마오쩌둥과 간디만큼이나 뚜렷하게 대비된다. 중국과 인도가 가장 대비되는 부분은 각자가 경제개혁에 나서는 과정이다. 전 세계의 국가인 중국에서 자본주의 경제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공산당이다. 1978년 중국이 경제개혁에 착수한 이후 외국인들이 중국 전역에 수 만개의 공장을 짓고 수천만 명을 고용하면서 1억이 넘는 중국인들이 빈곤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중국 노동자들은 경제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비해 평균 다섯 배나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외국 기업과 제휴하는 중국 공산당의 도박이 엄청난 성공을 거둔 셈이다.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하지만 경제적 자유는 주되 정치적 자유는 제한하는 싱가포르식 접근방식이 언제까지 유효할지는 모른다. 단순한 경제적 수치를 뛰어넘어 일상생활 전반에서 혁명적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인들이 언제까지 정치적 자유를 포기하고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책에는 이런 농담이 나온다. '팅사오펜이 차를 타고 가면서 신문물을 읽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그에게 물었다. '동무,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호등에 공산주의로 가려면 좌회전을, 자본주의로 가려면 우회전을 하라고 쓰여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그러자 텡사오펜이 기사에게 말했다. '아무 문제없네. 그냥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하면 돼.' "정치는 공산주의를 표방하면서 경제는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유머이다.

앞으로 한걸음 옆으로 두 걸음

반면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에서는 발달된 지방정치나 언론의 자유가 되며 경제개혁에 방해가 되고 있다. 인도

의 경제개혁은 멈춘다 가기를 되풀이하기 일췌하다. 그래서 인도인들은 인도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집에 들어가는 것 같다고 한다. 앞으로 한걸음 갔다가는 다시 옆으로 두 걸음 가지런 결국 집에는 돌아간다는 것이다. 인도는 중국처럼 정부 주도로 개혁을 일사천리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단거리 경주에서는 중국이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인도인들은 마라톤에서는 인도가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한다.

인도인들의 그 같은 장담이 허황된 것만은 아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서 변모되는 동안 인도는 전 세계 지식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의 실리콘 벨리로 알려져 있는 방갈로르에는 인포시스와 위프로 등의 인도 회사들이 사무실을 두고 있다. 100만이 넘는 사무직과 서비스 산업 일자리가 이미 인도로 옮겨갔고 지금도 계속 이동 중이다. 인도인들은 외국 회사 대신 소비자 상담전화에 응대하고, 정교한 컴퓨터 코드를 작성하며, 회계에서 투자은행 일까지도 맡아 하고 있다.

반짝이는 새 핸드폰과 오토바이로 상징되는 인도의 경제적 번영으로 이제 인도는 무한한 가능성의 땅으로 부활했다. 하지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대다수의 인도인들은 여전히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비껴 서 있다. 인도가 진정한 경제대국으로 거듭나려면 열악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수출상품을 제조할 공장을 지어 공장 노동자들에게도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만 한다.

우리에게 위협인가 기회인가

베테랑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뉴욕타임스와 포브스의 해외 특파원으로 중국과 인도를 긴밀히 취재해 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과 인도 경제발전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두 나라의 급부상이 세계경제 및 주변국가에 끼칠 영향까지도 전망하고 있다. 이 책은 특히 오프쇼어링, 공급사슬 관리, 분

역사 약력

- 오혜경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심리학과 대학원을 거쳐 미국 브라운 대학에서 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바른 번역'의 회원이며 옮긴 책으로 <아름다움의 발명> <죽음과 함께 춤출> <오릿세우스> <도그 휘스퍼러>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 등이 있다.
- 주영아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옮긴 책으로 <엑크로이드 살인사건> <더 큰 사랑은 없다> <이집트 십자가의 비밀> <죽음의 조건> <만년, 내사랑> 등이 있다.

해리인 등의 새로운 사업방식이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실제 기업의 사례를 들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로 전한다. 피라미드의 바닥을 공략하는 마케팅이나 인도의 인프라 구축 필요성,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정화 산업의 전망 등은 중국과 인도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장기 사업전략을 짜는 데 꼭 참고할만한 내용들이다.

책은 또한 중국과 인도의 정치, 군사, 환경 및 문화적 변화까지 다채롭게 그려내면서 우리가 국가로서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할 부분들이 있음을 일깨워준다. 일례로 지금 인도와 중국은 고속성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원외교에 나서고 있으며, 두 나라의 군사적 확장은 잠재된 군사적 갈등을 예고한다. 중국과 인도의 환경오염 역시 결코 두 나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익히 체감하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부상은 우리에게 위협인가, 기회인가. 중국과 인도가 역사적으로 차지했던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아가면서 정치, 경제, 군사, 환경, 자원 면에서 세계 질서를 재편해가고 있는 지금, 우리 한국은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두 나라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분석 없이 미국-중국-인도 삼국 체제로의 변화에 어떻게 발 빠르게 대처할 것인가.

저자는 인도와 중국으로부터 밀려오는 거센 경쟁의 파도에 대항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보호무역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교육과 경제의 기초를 강화하면서 미래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발명과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세계화가 가져오는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미국인의 관점에 치우친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서 중국과 인도의 변화에 결코 초연할 수 없는 우리에게 저자의 제언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고 다가온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기업인, 국제관계나 정치경제를 공부하는 학생, 동북아의 정치적 지역분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정치인, 중국과 인도가 주도할 시대에 글로벌 리더로 자식을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 모두 이 책에서 중국과 인도가 주도할 미래에 대비할 지혜를 찾아 보라고 권하고 싶다.

글=주영아



월운 스님에게 듣는 경전이야기 <3>

부처님가르침 원음 담아 경전 엮어

이상으로 경(經)이란 성자(聖者)들의 말씀을 적은 책이라는 정도의 가닥은 잡혔으니, 오늘은 그러한 경전(經典)들이 어떠한 과정(過程)으로 이루어졌을 까를 생각해 본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자신이 매우 위대(偉大)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사전(事前)에 골방에 처박혀서 소설가(小說家)가 소설(小說) 쓰듯이 이런 저런 이야기를 써 놓고,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듯이 한다면 모두가 따를까. 물론 아니다.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正反對)일 것이다. 성자는 말을 하려 나온 분이 아니다. 자신만이 터득한 인생살이의 방식을 실천(實踐)으로 민초들이 유

종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가 20세의 나이로 출가할 때엔 이미 호지법장자(護持法藏者:次世帶에 經典을 傳할 內定者)로 지목(指目)받고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른 시봉하기를 꺼렸던 대중(大眾)에서 신출(新出), 아난에게 "너는 호지법장자이니 부처님 곁에 늘 모시고 있는 시봉을 겸(兼)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아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걸었다는 것이다.

첫째 부처님께서 공양정장(供養正長)을 받고 가시는 데 따라가지 않겠다.

둘째 부처님 임으시던 웃을 물려받아 입지 않겠다.

셋째 자신이 출가하기 전, 20년간 이미 실천(實踐)은 따로 설해 주셔야겠다.

아난 존자 평생 부처님 곁에서 가르침 갈무리 불멸후 5개월 만에 결집...분량과 순수성 율동

익(有畜)하도록 돕고 인도하고 가르쳐서, 눈앞의 이익뿐이 아니라 먼 훗날에 후회해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건 없이 뛰어다니면서 때로는 우주의 진리를, 때로는 인생의 참 모습을, 때로는 인생이 싫어도 메고 가야 할 짐을, 때로는 오늘보다는 밝은 미래의 진정한 행복을, 끝없이 떠돌고 다녔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당대(當代)에 호응(呼應)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다행히 우리 부처님 말씀은 초기에는 물론 고생하셨지만 생존(生存)에 이미 상당한 동조자를 얻었다. 사위성(舍衛城) 60만호(萬戶)에 삼분의 일은 불법을 알고 삼분의 일은 불교가 있다고 듣기는 했으나 접하지는 못했고, 나머지 삼분의 일은 부처가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했다.

부처님 성도(成道)하신 날에 태어난 아난(阿難) 존자(尊者)는 기억력이

부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수락하시고, 그의 시봉을 받으시다가 그에게 법장(法藏)을 전하시고 열반(涅槃)에 드시니, 그 덕에 우리는 다른 어느 종교단체(宗敎團體)보다 순박한 경전을 모시게 되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공자(孔子)님의 경전은 논어(論語)인데 이 논어는 공자님 사후, 그의 손자인 자서(子思)에 의해 손질되어 빛을 보았고, 기독교(基督敎)의 교주인 예수님의 경전인 바이블 역시 그의 사후 400여년이 지난 뒤에야 아탄(亞坦)을 추심해서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불교경전은 부처님 입멸 후, 불과 5개월 만에 결집(結集)을 시작해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그 분량(分量)도 순수성(純粹性)도 뛰어넘는 점이 자랑스럽다.

불선사 조실, 동국역경원장

다림 다름 카메이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을 저보세요!
원주생식은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입니다. ISO9001품질인증업체

자연의 건강함을 담았습니다!
원주스님의 정성을 담았습니다!

원주생식은 원주스님의 손길과 정성, 자연건강법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연이 기른 채소, 그대로의 맛(대부분 싱겁이 거저고 있는 영양을 제대로 살려 원주생식을 만듭니다.)

스님이 만든 원주생식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세요!

자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전하는 원주생식 80,000원
꼭두 50%를 받아서인 원주밭야생식 80,000원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쌀의 영양 원주분식 90,000원
한약재가 듬뿍 들어있는 명품 참생식 90,000원

원주생식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요구르트 1병+우유 200cc+원주생식 1스푼+원주생식 1봉

주문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미천1동 신 29-3 우체국 703314-01-001873 (매주: 무신상) 소비자 상담실 (053)958-5921

관세음보살 손금 (22K) 목걸이 메달

대자대비의 발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장등록 출원 중)

자비구세 정신의 핵심으로, 천 가지 지혜 눈으로 중생계를 살피고 천 가지 구원의 손길을 펴서 고택에서 허덕이는 중생을 구하시려는 넓고 깊은 원력을 지니신 대자대비의 유일한 진신 관세음보살님... 그 위신력과 가호를 항상 간직하시길 기원합니다.

사업성취, 신수대길, 재수대통, 복덕구족, 만사형통, 승진, 합격, 안전, 성취발전, 심재발란 관세음보살님 명호연일 일시소멸

확대[앞] 확대[뒤]

※ 메달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재질 : 손금 22K, 케이스 : 케노텍(항공기 유리소재) / 크기 : 가로 2cm x 세로 3cm

사찰 불사용으로 매우 좋습니다. 스님들께서 문의 주시면 성심껏 안내하여 드립니다.

■ 구입문의 : 010-7208-3777, 010-2869-5777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산100번지 각원사 해일 협창
농협 231080-52-220201 이규상

**조계종 77조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역서 전등록 전5권 / 역서 무문관 / 역서 범암록 / 역서 천부경 / 역서 금강경
역서 신심명 / 역서 중도가 / 역서 반야심경 / 역서 선문염송 전30권 중 11권
역서 환단고기 전5권 / 역서 범용선사 심명 / 역서 선가귀감 / 역서 법성계
주머니 속의 심경 / 영월한현실 / 일월에 국화꽃 곱고 복산에 첫눈 희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복해로세상음복삼아

* 수련회로 인해 8월의 서울, 포천, 광주, 부산 법문 쉽니다

신간안내

바로보인 법상계 전강대선사 법어집 - 1달다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1인1다

조계종 제77조 전강대선사 법어집

이 책은 지혜 제일 전강대선사님의 범거랑과 범문 일화를 인가 제자인 대원 선사님께서 재조명하여 보인 것입니다.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선의 거목인 전강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쳐난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대원 선사님과 특별한 인연과 고수명창같이 어우러진 두 분의 범거랑도 자세히 실려 있습니다. 섬광과 같은 지혜로 수놓은 최상승법의 자취없는 문양과 향 없는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 1다 >는 선(禪) 수행자들에게 10년 가문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02-3494-0122 www.zenparadise.com